

곡성 체리 특화단지 육성 '착착'

곡성군이 현대인들의 과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득 과수인 '체리' 특화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FTA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인하되면서 체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껍질을 까는 번거로움도 없어 꾸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득과수로 체리를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체리 특화단지를 조성했다.

곡성군은 고품질 체리를 생산해 곡성 과수시장의 다변화와 국산 체리시장을

체리농업인연구회 운영·재배 기술 교육 올해 10ha 추가조성...2020년까지 50ha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곡성에서는 2017년 기준 12ha에서 체리가 재배되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재배단지 10ha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50ha 조성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곡성군은 고품질의 체리 생산을 위해

연 8회 이상 재배기술교육,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체리농업인연구회'를 운영해 안정성을 갖춘 고품질 국산 체리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체리에는 딸기의 6배, 사과 20배에 달하는 철분이 함유돼 있어 빈혈 예방에 좋으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관절염과 통증을 조절하

는데 도움을 준다.

또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해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붉은 색이 특징인 수입 체리와 달리 국산 체리는 색깔이 옅다. 국산 체리는 당도와 가격 모두 수입산에 뒤처지지 않는다. 방부제 걱정이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김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산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당도가 높아 소비자 반응이 좋고,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하고 안정성도 확보됐다"며 "일본에서도 자국산 체리가 수입산보다 소비



수확을 앞둔 곡성 체리. 곡성에서는 지난해 기준 12ha에서 체리가 재배되고 있다.

에게 높은 가격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곡성에서도 품질 좋은 체리를 생산해 지역을 대표하는 소득과수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한정길 기자

내고장 사람들



박병종 고흥군수는 19일 오후 12시 40분 도덕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도덕면사무소 준공(개칭)식에 참석한다.



최정희 구례부군수는 19일 오전 11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운영하고 있는 농사체험학습장에서 시민이 작물에 물을 주고 있다.

광양 농사 체험학습장 인기

135세대 참여...도시농업 활성화 기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운영하고 있는 농사체험학습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북적이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가족단위 주말 농장인 농사체험학습장은 텃밭농사를 경험하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화합 도모와 도시농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광양시는 농사체험학습장 운영에 앞서 참여할 가족을 모집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일반인과 실버로 구분해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았다. 이 중 135세대를 최종 선정했다.

이어 시험포장 내 부지 2,320㎡에 경

운 퇴비, 비료 시용 관수시설 설치와 구획정리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세대별로 16㎡의 농장을 분양하고 지난 4월 12일 농사체험학습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다.

농사체험학습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는 12월까지 재배하고 싶은 작목을 선택해 가꾸고 있다.

허명구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농사체험학습장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복한 도시농업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여수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시민대학 개강...지역자산 조사·프로그램 발굴

여수시가 도시재생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12기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여수시는 최근 광림동 주민 등 시민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림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개강식을 갖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광림동은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이번 시민대학에 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

이번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오는 7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강의를 진행한다. 시민대학 참여자들은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여수시는 도시재생의 이해,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 등 강의부터 지역자산 현장조사·워크숍, 도시재생 프로그램 발굴·발표 등 실습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12기 도시재생 시민대학 개강식과 첫 강의는 15일 광림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은 김종희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주민주도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를 강의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도시재생 사업 발굴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왔다. 2014년 1기부터 2017년 11기까지 총 309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새뜰마을사업이 추진 중인 여수 광림지구.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을 목표로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뜰마을사업은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광림지구, 충무지구, 화양면 대곡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고흥 설화' 체험 콘텐츠로 만난다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선정...참여형 콘텐츠 조성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전남지역 설화 육성을 위한 '2018년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전라남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총 사업비 7억5,000만원(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기업자부담 5,000만원)을 투입해 설화 전시 콘텐츠를 제작한다.

고흥군은 단순 전시 콘텐츠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험 중심형 전시콘텐츠를 구

축해 양질의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흥 설화를 적용한 상호작용 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교육 자료와 연계한 참여형 콘텐츠가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콘텐츠의 제작 및 활용을 지원해 제작된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과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됐

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내 다양한 전시콘텐츠와 연계, 관람객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 상품 제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고흥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분청도자문화와 설화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터인 사적 제 519호 운대리 가마터에 건립됐다.

/고흥=진중연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4633-1790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